



2003년 충청권 산업 연관표 분석

2007. 9

충북개발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

<요 약>

- 충청권은 총공급 중 지역내 공급이 낮음
 - 총공급의 32%는 타지역에 의존함
 - 총수요측면은 타지역 수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큼
- 충청권은 제조업 산출 비중이 51.7%이며 이중 기초소재업종이 2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전국대비 광업의 특화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전국대비 1, 2차 산업의 비중은 높고 3차산업의 비중은 낮음
- 충청권의 중간투입률은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역내 생산품 투입률은 낮음
 - 중간투입물 구성에서 역내 생산품 비율이 4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음
- 충청권은 최종수요 중 민간소비지출은 낮고, 고정자본형성은 높음
 - 최종수요 중에서 역내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충청권은 타지역으로의 이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충청권은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낮음
- 충청권은 타지역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
 - 지역간 파급효과는 각 권역에서 가장 높음 수준

■ 배경

- 2007년 8월에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가 기존의 전국단위에서 지역단위로 편제 발행됨

- 기존의 산업연관표와 달리 2007년 8월 발행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권역별 및 산업 상호간의 연관성을 파악 하는데 활용도가 높음

- 현행 2000년 전국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측정오차 발생
 - 각 산업은 한나라 안에서 하나의 생산기술구조를 갖고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생산기술구조의 차이가 존재 함

-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는 경우 충청권과 타지역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충청권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과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 측정에 매우 유용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충청권의 총공급과 총수요,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를 파악
 - 그리고 지역별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지역별 최종수요, 지역간 이출구조, 지역간 이입구조, 지역별 최종수요와 유발효과, 지역간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고자 함

1. 총공급과 총수요

■ 총공급 중 지역내 공급의 경우 충청권이 가장 낮음.

○ 총공급중 지역내 공급(산출액) 비중은 수도권이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의 경우 68.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음.

- 이는 충청권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32%는 타 지역에 의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만큼 지역파급효과가 작음을 의미

-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볼 때 타지역에서 공급되는 비중이 큼.

<표 1 >지역별 총공급

(단위 : 10억원, %)

	지역내공급	타지역공급	해외공급	총공급
수도권	781,849.3 (75.6)	137,952.3 (13.3)	114,108.0 (11.0)	1,033,909.7
충청권	186,912.7 (68.0)	58,222.1 (21.2)	29,750.9 (10.8)	274,885.7
전국	1,740,945.3 (72.0)	407,515.3 (16.9)	268,296.5 (11.1)	2,416,757.1

■ 총수요 측면은 타지역 수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큼.

○ 충청권에서 생산된 상품은 역내에서 66.7%가 수요가 되며 타지역에서 24.4%가 수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국에서 이출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며 해외수출은 전국평균 보다 낮게 나타남.

- 충청권은 총공급과 총수요 모두 역외 이입과 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충청권이 국토중심에 위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2> 지역별 총수요

(단위 : 10억원, %)

	지역내수요		타지역수요	해외수요
	중간수요	최종수요	이출액	수출액
수도권	414,199.5 (40.1)	373,283.9 (36.1)	129,196.6 (12.5)	117,229.7 (11.3)
충청권	107,196.9 (39.0)	75,893.2 (27.6)	67,148.8 (24.4)	24,646.8 (9.0)
전국	973,967.2 (40.3)	763,195.7 (31.6)	407,515.3 (16.9)	272,079.0 (11.3)

2. 고용구조와 산업구조

■ 충청권은 전국 취업자의 11.1%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그러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1차산업의 비중은 높고 3차산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은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3> 산업별 취업자

	수도권		충청권		전국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농림어업	263,510	3.3	419,141	21.3	1,932,136	10.9
광업	2,819	0.04	2,549	0.13	18,854	0.11
제조업	1,495,391	18.7	362,239	18.4	3,294,047	18.6
전력가스수도	21,207	0.3	9,531	0.5	71,742	0.4
건설업	780,511	9.8	169,640	8.6	1,638,454	9.3
서비스	5,437,744	68.0	1,000,276	50.9	10,709,923	60.6
전산업	8,001,182	100.0	1,963,376	100.0	17,665,156	100.0

■ 전국에 비해 1,2차 산업은 높고, 3차 산업은 낮은 비중을 나타냄.

<표 4> 지역별 산출액 구성비 및 입지계수

	수도권		충청권		전국
	비중	입지계수	비중	입지계수	비중
농림어업	0.7	0.303	4.1	1.814	2.3
광업	0.1	0.402	0.4	1.940	0.2
제조업	34.8	0.781	51.7	1.162	44.5
소비재업종	9.7	1.060	12.6	1.379	9.1
음식료품	2.8	0.702	7.6	1.947	3.9
섬유 및 가죽제품	3.3	1.265	1.8	0.717	2.6
목재 및 종이제품	1.0	0.943	2.2	2.076	1.1
인쇄출판 및 복제	1.5	1.889	0.2	0.281	0.8
가구 및 기타제조업	1.1	1.493	0.7	0.894	0.8
기초소재업종	8.3	0.501	20.9	1.259	16.6
석유 및 석탄제품	0.3	0.099	3.5	1.159	3.0
화학제품	3.7	0.602	11.1	1.792	6.2
비금속광물제품	0.9	0.651	2.5	1.848	1.3
제1차금속제품	1.8	0.416	2.4	0.546	4.4
금속제품	1.6	0.961	1.4	0.847	1.6
조립가공업종	16.8	0.893	18.3	0.972	18.8
일반기계	2.9	0.941	2.6	0.835	3.1
전기 및 전자기기	9.7	1.062	10.4	1.135	9.2
정밀기기	0.6	1.230	0.6	1.292	0.5
수송장비	3.6	0.587	4.7	0.771	6.1
전력가스및 수도	10.0	0.964	10.9	1.050	10.4
전력가스수도	1.9	0.804	3.0	1.287	2.3
건설	8.2	1.010	8.0	0.983	8.1
서비스	52.0	1.283	31.0	0.763	40.6
도소매	6.2	1.344	2.9	0.642	4.6
음식점및숙박	3.5	1.127	2.7	0.875	3.1
운수및보관	4.3	1.201	2.1	0.583	3.6
통신및방송	3.5	1.401	1.6	0.652	2.5
금융및보험	6.1	1.418	2.6	0.612	4.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5.3	1.473	6.5	0.626	10.4
공공행정및국방	2.8	0.836	4.0	1.206	3.3
교육및보건	7.1	1.109	6.9	1.079	6.4
사회및기타서비스	3.4	1.377	1.6	0.652	2.5
기타	2.4	1.155	1.9	0.923	2.0
계	100.0		100.0		100.0

- 충청권의 경우 산출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며, 전국에 비해 특화도가 가장 큰 산업은 광업임.
- 충청권은 제조업 산출비중이 51.7%이며 이중 기초소재업종이 20.9%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상대적인 특화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는 광업이 가장 크며, 세부사업으로는 목재 및 종이제품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3. 지역별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 충청권의 중간투입률은 전국보다 높지만 자გი지역 생산품 투입률은 낮음.

- 충청권의 중간투입률은 수도권 보다는 낮으나 전국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중간투입률이 낮다는 것은 역으로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표 5>중간투입률 및 중간투입구성 (단위 :%)

	수도권	충청권	전국
중간투입률	53.0	57.4	55.9
중간투입구성	100.0	100.0	100.0
자გი지역생산품	59.6	41.6	52.1
타지역생산품	20.2	36.7	26.6
수입품	20.2	21.8	21.4

- 중간투입물 구성에서 충청권은 자გი지역 생산품 비율이 4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음
- 이는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위해 투입되는 상품 중 과반수 이상을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다는 의미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을 의미

4. 지역별 최종수요

■ 충청권은 전국에 비해 민간소비지출은 낮고, 고정자본형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충청권의 경우 최종수요에서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이 가장 크며, 고정자본형성, 수출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수요 비중이 큼.

- 반면 민간소비지출과 수출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비 (단위 :%)

	수도권	충청권	전국
민간소비지출	47.5	38.8	43.4
정부소비지출	6.6	11.1	8
고정자본형성	21.8	25.2	22.1
재고증감	0.1	0.3	0.3
수출	23.9	24.5	26.3
계	100	100	100

○ 지역내 최종수요중에서 자가지역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청권이 가장 작게 나타남.

- 충청권은 최종수요에서 자가지역 생산품이 66.6%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표 7> 최종수요 중 자가지역 생산품 비중 (단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77.3	73.5	66.6	69.2	65.0	69.3	72.6

5. 지역간 이출구조

■ 충청권은 타지역으로의 이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산출액에서 자가지역에서의 수요가 적고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간 물적 교류가 활발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8> 지역별 산출액 구성 (단위 :%)

	자가지역	타지역(이출)	해외(수출)	산출액계
수도권	68.5	16.5	15.0	100.0
충청권	50.9	35.9	13.2	100.0
전국	61.0	23.4	15.6	100.0

- 충청권에서 역외로 이출되는 지역으로는 수도권의 비중이 크고 다음은 경남권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역외 이출지역으로 나타났음.
- 반면 수도권에서의 이출에 있어서도 충청권은 경남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9> 지역간 이출액의 구성비 (단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이출계
수도권	-	6.0	24.1	19.8	19.4	30.7	100.0
강원권	64.3	-	10.6	6.5	8.2	10.4	100.0
충청권	57.6	2.8	-	12.5	10.2	16.7	100.0
전라권	50.8	2.1	14.5	-	10.7	21.8	100.0
경북권	40.4	2.5	11.3	8.2	-	37.6	100.0
경남권	46.4	2.9	13.0	14.0	23.6	-	100.0

6. 지역간 이입구조

■ 충청권은 지역내 수요의 자가지역 공급이 가장 낮음

- 충청권은 자가지역으로부터의 공급이 가장 낮으며,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입이 가장 크게 나타나 타 지역 의존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이는 이출구조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위치로 타 지역과의 교류가 많음을 의미

<표 10> 지역별 공급 구성 (단위 :%)

	자가지역	타지역(이입)	해외(수입)	계
수도권	68.0	17.5	14.5	100.0
충청권	52.0	31.8	16.2	100.0
전국	61.1	23.5	15.4	100.0

- 충청권으로 이입되는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가장 크며 다음은 전라권으로 나타났음.
- 타 지역도 수도권으로부터 이입되는 비중이 가장 크나, 충청권은 경남권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큼.

<표 11> 지역간 이입액의 구성비 (단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도권	-	52.6	53.5	49.8	42.5	46.0
강원권	5.6	-	2.2	1.5	1.7	1.5
충청권	28.0	13.0	-	16.4	11.6	13.0
전라권	21.3	8.3	14.4	-	10.5	14.6
경북권	16.6	9.6	11.0	9.1	-	24.8
경남권	28.4	16.6	18.9	23.1	33.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지역별 최종수요와 유발효과

■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자გი지역 생산유발효과는 수도권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충청권의 경우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전체 생산유발효과 중에 59.7%가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타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20.5%로 가장 크며, 경남권, 전라권의 순임.

- 타 지역 최종수요 증가시, 충청권의 생산유발효과는 수도권이 6.1%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표 12>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률 (단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도권	76.3	21.0	20.5	18.3	17.5	16.0
강원권	1.2	56.9	0.9	0.6	0.7	0.6
충청권	6.1	5.4	59.7	5.6	4.7	4.5
전라권	5.3	4.5	6.0	63.3	4.8	5.5
경북권	4.2	4.7	4.7	4.0	60.8	7.3
경남권	6.9	7.6	8.2	8.2	11.5	6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충청권의 생산유발계수는 1.676으로 타 권역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정도의 수준임.

- 이 중 지역내의 생산유발효과는 1.00으로 최종수요 증가분 정도 지역내에 파급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3> 지역별 생산유발계수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도권	1.125	0.349	0.344	0.312	0.295	0.284
강원권	0.020	0.944	0.014	0.010	0.012	0.010
충청권	0.100	0.090	1.000	0.095	0.079	0.080
전라권	0.087	0.074	0.101	1.078	0.081	0.097
경북권	0.070	0.077	0.079	0.068	1.022	0.130
경남권	0.113	0.125	0.137	0.140	0.193	1.171
전국	1.644	1.661	1.676	1.702	1.682	1.772

- 충청권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는 0.736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지역내 부가가치는 0.4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지역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도권	0.597	0.154	0.151	0.142	0.134	0.128
강원권	0.010	0.530	0.007	0.005	0.006	0.005
충청권	0.039	0.035	0.466	0.035	0.030	0.028
전라권	0.032	0.026	0.036	0.497	0.028	0.033
경북권	0.026	0.030	0.029	0.024	0.461	0.046
경남권	0.039	0.043	0.046	0.049	0.070	0.487
전국	0.743	0.817	0.736	0.752	0.728	0.727

- 충청권에서는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약 16.8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 중에 10.6명은 충청권에서 취업유발효과가 일어나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임.

<표 15> 지역별 취업유발계수

(단위:명/10억원)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도권	13.1	3.5	3.3	3.1	2.8	2.7
강원권	0.4	11.4	0.2	0.2	0.2	0.1
충청권	1.1	0.9	10.6	0.9	0.8	0.7
전라권	1.0	0.8	1.1	12.3	0.9	1.0
경북권	0.7	0.7	0.7	0.6	10.6	1.4
경남권	0.9	0.8	0.9	1.0	1.5	10.6
전국	17.1	18.1	16.8	18.1	16.9	16.4

8. 지역간 상호의존관계

■ 충청권은 타지역에 대한 의존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간 상호의존관계는 지역간 피드백효과와 지역간 파급효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
- 충청권은 생산액 중 지역내효과의 비중이 가장 크나 타지역과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반면 지역간 파급효과는 각 권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표 16> 지역별 생산액의 요인별 분해

(단위 :%)

	지역내효과	지역간 피드백효과	지역간 파급효과	계
수도권	85.2	1.9	12.9	100.0
강원권	80.2	0.2	19.5	100.0
충청권	69.2	1.3	29.5	100.0
전라권	70.9	1.4	27.7	100.0
경북권	70.9	1.3	27.8	100.0
경남권	78.2	2.0	19.8	100.0

- 충청권은 수도권과 후방연관성이 가장 높으며, 전지역에서는 강원권 다음으로 후방연관성이 높음.

- 생산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는 정도를 지역간 후방연관성이라고 함.
- 즉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중간재를 타 지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편이며 특히 수도권에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7> 지역간 후방연관성 (단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도권	-	15.6	13.6	10.7	9.9	9.5
강원권	0.9	-	0.6	0.4	0.6	0.6
충청권	4.3	4.1	-	3.8	3.4	3.0
전라권	4.7	3.7	4.9	-	3.7	4.2
경북권	3.0	3.7	3.8	2.7	-	5.2
경남권	4.9	5.3	5.1	5.6	8.4	-
전지역	17.8	32.5	28.0	23.3	26.1	22.5

- 충청권은 전방연관성 또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의 연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완성된 생산물을 다른 지역에 중간재로 판매하는 정도를 지역간 전방연관성이라고 함.
- 충청권은 전방연관성 역시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후방연관성 보다 조금 더 높게 분석됨.

<표 18> 지역간 전방연관성 (단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수도권	-	17.3	16.0	12.4	10.3	8.9
강원권	1.0	-	0.9	0.5	0.7	0.5
충청권	3.9	4.1	-	3.7	3.3	2.5
전라권	2.8	3.0	4.1	-	2.6	3.0
경북권	2.7	3.2	3.3	2.9	-	4.8
경남권	4.8	5.7	6.1	6.1	11.5	-
전지역	15.1	33.4	30.3	25.6	28.4	19.7

9. 의의 및 시사점

-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 및 산업간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특히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임.

- 지금까지는 2000년 전국 산업연관표를 분석에 사용하여왔으나 지역경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 야기
 - 기존의 파급효과 분석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과대 추정됨.
 - 또한 지역의 경제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며, 시의성도 떨어져짐.

-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권역별로 나누어 충북의 경제특성에 맞는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문제는 계속 안고 있으나 문제의 정도는 크게 완화됨.
 - ⇒ 앞으로 충북경제 구조적 특징이 감안된 ‘충북 산업연관표’의 작성이 후속작업으로 진행될 필요성 있음.

-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충청권이 갖는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타지역의 의존성이 크다는 것임.
 - 이는 파급효과 면에서 볼 때, 지역내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